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투석 방식에 따른 동반 질환 유병률 비교: 말기신부전 대상 다기관 연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²,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³
대구파티마병원 내과⁴,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⁵,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⁶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⁷,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⁰

진미경¹, 최지영¹, 서정주¹, 박선희¹, 김찬덕¹, 김영훈², 도준영³, 김성호⁴
김성은⁵, 이종수⁶, 김연수⁷, 양철우⁸, 김남호⁹, 강신욱¹⁰, 김용림¹

Comparison of Comorbidity Prevalence by Dialysis Modality in ESRD: Study of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End Stage Renal Disease

Mi-Kyung Jin¹, Ji-Young Choi¹, Jung-Ju Seo¹, Sun-Hee Park¹, Chan-Duck Kim¹
Yeong Hoon Kim², Jun-Young Do³, Sung-Ho Kim⁴, Seong Eun Kim⁵, Jong Soo Lee⁶
Yon Su Kim⁷, Chul Woo Yang⁸, Nam-Ho Kim⁹, Shin-Wook Kang¹⁰, Yong-Lim Kim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²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³ Yeungnam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⁴ Daegu Fatima Hospita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⁵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⁶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⁷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⁸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⁹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⁰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목적: 투석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및 당뇨 등 동반 질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투석방식에 따른 동반 질환의 빈도 및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말기신부전 환자의 생존을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의 말기신부전 대상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 등록된 유지투석환자 (구환) 2,231명 중, 의무기록 조회로 동반 질환의 조사가 가능했던 환자 1327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등록될 당시와 투석 시작시의 동반 질환 유무를 투석 방식에 따라 조사하였다. 또 758명의 신환에서도 투석 방식에 따른 동반 질환 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동반 질환은 만성폐질환,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심부전, 결체조직질환, 경증 간질환, 중등도 간질환, 종양이었다.

결과: 구환의 투석 방식은 혈액투석 (HD) 666명 (50.2%), 복막투석 (PD) 661명 (49.8%)이었고 신환은 HD 540명 (71.2%), PD 218명 (28.8%)이었다. 등록 시 구환의 평균 투석기간은 HD 1786.4일, PD 2660일로 PD 환자에서 더 길었다. 투석 시작시 평균 연령은 구환 및 신환 모두에서 HD에서 더 높았다 (HD/PD: 구환 53세/48.5세, 신환 57.1세/51.9세, $p < 0.05$). 구환의 유병률 분포 및 변화와 신환의 유병률을 조사하여 그림 1,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론: 말기신부전 다기관 연구에 등록된 투석 신환 및 구환에서 HD 환자가 더 고령이었고 동반 질환도 많았다. 투석 구환의 경우 등록시 동반 질환의 유병률이 투석 시작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투석 방식에 따른 생존을 분석시 이러한 동반 질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동반질환, 유병률, 투석방식

Comorbid disease, Prevalence, Dialysis modality